

# 책과 思索이 있는 시간

## KBS 「이 한권의 책」 담당 黃仁宇 아나운서

책에 관심있는 이라면 KBS 黃仁宇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기억할 것이다. 자정 가까운 늦은 밤, KBS 제1라디오에 다이얼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노라면 책에 관한 얘기가 도란도란 흘러나온다. 전문가가 나와서 한권의 책을 소개하면, 여자 아나운서가 이것저것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져 청취자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KBS라디오의 교양프로 「이 한권의 책」(밤 11시50분~12시)의 진행을 맡고 있는 황인우 아나운서다.

“이 프로는 10분짜리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많았던 그 어느 프로보다도 애착이 갑니다. 청취자들에게는 좋은 책을 소개한다는 보람도 크지만 저 자신이 워낙 책을 좋아해선지 개인적으로도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여간 흐뭇하지 않아요.”

동그란 얼굴에 눈과 입매무새가 고와 호감을 주는 황인우씨는 마이크를 잡은 지 만8년이 되는 중견방송인이다. 그는 어린이 노래자랑 「누가 누가 잘하나」로 방송을 시작한 이래, 크고 작은 프로그램에서 차분하면서도 매끄러운 진행솜씨를 보여 시청자들과 친숙해졌다.

### ‘반응 좋아 책임감도 무거워’

「출판저널」이 황인우 아나운서를 찾게 된 데에는 약간의 사연이 있다. 편집실에는 독자들의 문의전화나 의견을 적은 편지들이 자주 날아드는데, 대개는 새로 나온 책이나 출판사에 대한 문의가 아니면 편집내용에 대한 비평이나 주문들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말에는 멀리 경남 馬山에서 색다른 편지가 날아들었다.

도서정보 전문지인 「출판저널」이 어찌 「이 한권의 책」 프로와 그 진행자를 의면할 수 있는냐는 신랄한 꾸짖음이었다.

“자정 가까운 시간에 방송되는 짧은 프로인데도, 의외로 청취자들의 반응이 좋아 고맙기도 하고 그만큼 책임감도 무겁게 느껴지는군요.”

87년 2월 신설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이 있던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같이 청취자를 찾고 있다.

이 시간은 매일 한명의 교수를 초대해 한권의 책을 놓고 그 내용과 저자의 작품세계,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엮여지는데, 현재는 다섯명의 고정 초대교수들이 대역섯권의 책을 골라오면 한꺼번에 녹음해두었다가, 담당PD가 교수와 책의 내용을 안배해 매일 내보내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초대교수는 담당자가 선정하지만, 책의 선택은 전적으로 교수들에게 일임한다. 물론 일정한 선택기준은 있어, 대학생층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장인층이 읽을 수 있는 요즘의 책이면 무엇이든 환영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문학작품은 물론 철학·예술·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책들이 소개됐다. 진행도 책의 내용만을 충실하게 소개하는가 하면, 책 주변의 이야기를 포함한 문화계나 사회전반의 동향까지로 확대되기도 해, 청취자는 그야말로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종합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셈이다.

“스크립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방송국으로 책을 가지고 나오면, 내용을 한번 들춰 볼 거

**자정 가까운 시간에 방송되는 짧은 프로인데도, 의외로 청취자들의 반응이 좋아 고맙기도 하고 그만큼 책임감도 무겁게 느껴진다고.**

를도 없이 그냥 녹음에 들어가는 거지요. 처음에는 흥미도 있고 짧은 프로그램이기도 해서 부담이 적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녹음이 있는 날은 꼭 숙제를 한아름 안고 있는 기분이랍니다.”

### 책과 독자와의 징검다리

황인우씨는 자신이야 그저 독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간간히 던지는데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그의 폭넓은 지식에 감탄하는 청취자들이 많다. 이것은 그만큼 그가 이 시간을 위해 평소 자료수집에 특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일간지의 출판관계기사와 출판정보지를 눈여겨 체크하며, 독서를 하면서도 짧게 메모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황인우씨는 말한다. 그런가하면 방송일과 가정주부로서의 바쁜 일과 속에서도 가끔씩 서점을 둘러보기도 한다고.

“「이 한권의 책」은 조용한 밤시간에 책을 통해 사색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인지 차분히 듣고 즐기는 드러나지 않은 청취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일하는 아나운



서실 남자동료분들이 야근시간에 꼭 듣고 난 다음 좋은 평을 해 주곤 해서 많은 힘을 얻곤 합니다.”

그러나 편지나 전화를 해오는 열성에 청자도 심심찮게 있다. 일전에는 정확한 책명과 출판사를 물은 지방에 청자에게 책을 보내주기 위해서 황인우씨가 직접 시내 서점들을 헤맨적도 있었다. 결국 책을 구하지 못한 채 사과편지만 보내고 말았는데, 오히려 서울에 올라오는 길에 책을 구입한 그 애청자가 황인우씨에게 한권을 보내온 적도 있었다고. 그런가하면 개중에는 70세를 넘은 애청자도 있어, 세삼 이 시간진행의 책임감을 자각하기도 했었다고 황인우씨는 말한다.

「이 한권의 책」외에 「내마음의시」(제2AM, 밤12시20분~1시)와 「가정희망음악」(제1FM, 오전10시~12시)도 진행하고 있는 황인우씨는, 이 중에서도 「이 한권의 책」을 통해 고급 청취자들과 만날 수 있어 흐뭇하기 짝이 없었다. 방송을 끝내면 항상 마음 한구석에 미진함을 느낀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바쁜 걸음을 녹음실로 향했다. —오애리 기자

도서출판  
**대학서림**  
전화 745-1220  
763-1220

### 허리가 아프시다구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국판 · 206면 · 값 3,500원  
Rene Cailliet, MD 지음 · 정진우 옮김

이 책은 일반인들에게 요통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미있는 그림을 삽입하여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쓴 책이며 내용은 기계적인 요통에 대한 원인, 진단, 치료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부록으로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요통에 대한 운동방법 몇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책은 일반인은 물론 요통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 요통교실

방송국을 통하여 전국에 메아리친 요통 치료의 결정판

차 례

- 반드시 회복되는 수영요법
- 요통환자의 성생활
- 요통예방의 스트레칭법
- 요통에 관한 전문상식
- 요통 Q and A
- 특별부록 : 체질과 건강

4×6 판 · 382면 · 값 4,000원  
金宰佑 · 金有在 著

### 암으로 고통받는 이와 가족들에게

이효숙 그리고 그 가족 작  
A5변형 / 272면 / 3200원

암이라는 선고를 받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쓴 책이다. 연세대 간호학과를 나와 간호원 생활을 하다가 암에 걸린 이효숙씨가 직접 쓴 병상일기와 남편이 쓴 병상일지, 아들이 엄마에게 쓴 편지 등이 실려있다.

이 책은 사형선고와도 같이 가슴 철렁 내려앉게 하는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미리 겪은 사람의 경험담이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엮어진 것이다.

이 병상일지의 주인공은 82년 6월 세상을 떠났다.

▶차례 나의 병상일지/아내의 지난날/전공살린 봉사활동/잠깐 쉬러라/창천의 병력/암 제거 수술/죽을 준비로 떠나다 외